

## 보호작업장 뇌성마비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련요인(Ⅱ) - 중재변인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

정민예\*, 유은영\*, 이미자\*\*

\*연세대학교 보건과학 대학 작업치료학과 및 보건과학 연구소

\*\*삼육재활병원 재활치료과

### Abstract

#### Stress Related Factors of Cerebral Palsy Workers in Protective Employment Companies(Ⅱ)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and mederate factors -

Jung, Min-Ye\*, Ph.D., O.T., Yoo, Eun-Young\*, Ph.D., O.T., Lee, Mi-Ja\*\*, M.P.A.,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Institute of Health Science, Yonsei University

\*\*Dept. of Rehabilitation Therapy, Sam Yook Rehabilitation Hospital

**Objectiv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measure the level of stress of cerebral palsy workers, an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ess dimensions and stress inducing factors of cerebral palsy workers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Method:** The sample used in this study consists of 66 employees with cerebral palsy wokers. They are employees of the protective employment companies located in Seoul, Incheon, and Gyung-gi province.

The 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 which was designed through modification of Goldberg's 60-items of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 was used to measure the stress level. The following variables, independent and moderate variables, are designed for the same purpose.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general and disability characteristics, workplace-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The moderate variables include social support, type A behavior pattern, self-esteem and coping strateg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version 6.12 program.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For the moderate variables, the low self esteem, and A type behavior were more significant to measure the stress level.
2.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significant variables on the level of stress of cerebral palsy workers were low self-esteem and A type behavior patter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ppropriate health promotion programs, should be established and provided for reducing the stress of cerebral palsy workers in manufacturing industry.

**Key Words :** Stress, Cerebral palsy workers, Job stress, self-esteem, A type behavior pattern, Social support, Coping strategy

## I. 서 론

뇌성마비근로자는 장애의 특성으로 직업재활 영역에서 가장 어려운 실무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구직신청한 장애인의 취업률은 26.4%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매우 부진하며, 취업 후에도 장애의 특성으로 직업적응 및 고용안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이계준과 조상현, 1998). 취업 후에도 직장은 주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 수 있다(Cooper, 1981). 직업적으로 제조업이라는 직종은 일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성격으로 사무직 근로자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다(최정애, 1982).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회적 계층이 낮은 근로자일수록 스트레스가 잘 발생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Kessler, 1986). 제조업에 종사하는 뇌성마비근로자는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뿐 아니라 직업에서의 스트레스, 또한 낮은 임금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취업한 이후에도 직장적응 및 고용안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업을 영위하고 유지하는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이들이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며, 앞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뇌성마비 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련요인을 조사하였다(정민에 등, 2002). 이 연구에 의하면 뇌성마비 장애인은 남자보다 여자인 경우에,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근무환경과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스트레스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하지만 스트레스연구에 있어서 대부분 환경적 스트레스원이 직접적으로 스트레스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보다는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개인적인 중재요인의 역할에 따라 스트레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송영숙과 이종목, 1997). 이처럼 스트레스 과정에서 결정적인 중재역할을 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지지, 성격유형, 대처 전략 등이 있다(김정희, 2000). 그 외 자아존중감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 증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중재요인으로 볼 수 있다(Hagiharha 등, 1997).

아직 뇌성마비 장애근로자를 대상으로 중재요인의 역할을 확인한 연구는 없었으며, 중재요인을 확인하는 일은 중요할 것이다. 스트레스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중재요인을 파악하여 재활치료와 직업재활훈련에 있어서 스트레스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직업을 준비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들이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본 연구는 제조업 종사 뇌성마비근로자의 스트레스 중재변인으로 성격,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 대처 전략에 대해 스트레스 정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중요한 변인을 확인하여 재활전문인에게 그들을 치료하고 직업을 준비, 유지하는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경인 지역의 보호고용사업장에 종사하는 뇌성마비 근로자를 대상으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2개월에 걸쳐 방문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0개 보호고용시설(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1)의 장에게 설문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조사를 허락한 15개의 사업장 지체장애근로자 나누어주고 회수한 후 그 중 뇌성마비 장애인 66부에 대해 분석하였다.

### 2. 연구 도구

#### 1) 스트레스 정도

독립변수는 일반적인 특성, 장애특성 및 재활과정, 일상생활 동작 수행능력, 직장의 배려이며, 종속변수는 제조업종사 뇌성마비 근로자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한 결과이다. 뇌성마비 근로자의 스트레스 수준의 측정은 신뢰도와 타당도가 인정된 일반 건강 측정표(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GHQ)(Goldberg, 1978)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된 사회 심리적 건강측정도구(Psychosocial Well-being Index; PWI)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사회적 역할 수행 및 자기신뢰, 우울증, 수면 장애 및 불안, 일반 건강 및 생명력 등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도에

따라 '항상 그렇다', '자주 그렇다', '가끔 그렇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Likert의 4점 척도를 이용하여 각 항목에 (0-1-2-3)의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각 근로자의 스트레스 점수를 산정 하였다. 합산한 PWI의 값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며 합산한 점수가 22점 이하는 정상군, 23~62점을 잠재적 위험군, 63점을 고위험군으로 정의된다(장세진, 1993).

#### 2) 성격

생산직 근로자용 질문지의 내용 중 A형 행동유형 5문항,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A형 타업을 의미한다(이종목과 박한기, 1988).

#### 3) 대처 전략(통제, 회피)

대처 전략은 문제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기존의 적응반응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느끼는 스트레스 상황을 다루려는 노력이다.

Latack(1986)의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김정희(2000)가 통제, 회피 등 2개 요인으로 구성한 설문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사회적 자원

생산직 근로자용 질문지의 내용 중 사회적 자원 4문항이며, 5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원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이종목과 박한기, 1988).

#### 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개념은 자신의 가치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평가적 태도이다(McCandless, 1970).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한 척도는 Rosenberg(1965)

표 1. 보호고용 뇌성마비근로자의 특성

| 특성       | 변수명      | 명(%)    | 특성     | 변수명         | 명(%)    |
|----------|----------|---------|--------|-------------|---------|
| 성별       | 남자       | 41(62%) | 장애등급   | 1~2급        | 40(61%) |
|          | 여자       | 25(38%) |        | 3~4급        | 24(36%) |
|          |          |         |        | 5~6급        | 2(3%)   |
| 연령       | <30      | 37(56%) | 보행보조장비 | 필요함(휠체어/목발) | 22(33%) |
|          | 30≤연령<40 | 25(38%) |        | 필요없음        | 44(67%) |
|          | <50      | 4( 6%)  |        |             |         |
| 결혼 여부    | 미혼       | 61(92%) | 재활치료여부 | 받지않음        | 32(48%) |
|          | 기혼       | 5 (8%)  |        | 받음          | 34(52%) |
| 교육(년)    | ≥12      | 19(29%) | 직업훈련   | 받지않음        | 42(63%) |
|          | <12      | 47(71%) |        | 받음          | 24(37%) |
| 주관적 건강상태 | 좋다       | 56(85%) | 자격증여부  | 없음          | 54(82%) |
|          | 나쁘다      | 10(15%) |        | 있음          | 12(18%) |
| 통근사항     | 기숙사      | 36(55%) | 급여     | 50만원미만      | 46(70%) |
|          | 통근       | 30(45%) |        | 50만원이상      | 20(30%) |

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을 전병제(1974)가 번역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고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C/SAS 6.12(SAS Institute Inc, 1999)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방법은, 스트레스 수준이 63점 이상을 고위험 스트레스군으로, 63점 이하를 위험스트레스군으로 나누어 변수별 비교위험도는 비차비로 측정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보호고용 뇌성마비근로자의 특성

보호고용 뇌성마비 근로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자가 41명, 여자가 25명이었으며, 연령은 30대 미만이 56%로 가장 많았고, 결혼을 하지 않은 경

우가 92%, 고등학교이상의 교육을 받은 뇌성마비 근로자가 71%이었으며,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경우가 85%, 장애등급은 1~2급이 가장 많아 61%였고, 보행시 보조장비가 필요 없이 독립 보행을 하는 경우가 67%였다.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는 52%, 작업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37%였다. 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18%였고, 월급여는 50만원 미만이 70%이었다.

### 2. 중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표 2. 중재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             | 평균   | 표준편차 |
|-------------|------|------|
| A형타입 성격     | 2.49 | 0.75 |
| 대처전략(통제)    | 2.76 | 0.64 |
| 대처전략(회피)    | 3.10 | 1.20 |
| 대처전략(통제+회피) | 2.74 | 0.61 |
| 사회적지지       | 2.55 | 0.46 |
| 자아존중감       | 3.10 | 0.73 |

뇌성마비근로자의 성격은 2.49, 대처전략(통제)은 2.76, 대처전략(회피)은 3.10, 대처전략(통제+회피)은 2.74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사회적 지지는 2.55, 자아존중감은 3.10의 평균점수를 보였다.

### 3. 중재변인과 PWI(Psychosocial Well being Index)의 상관관계

중재변인과 PWI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상관관계가 유의했던 변수로는 성격과 자아존중감, 대처전략(통제)과 자아존중감, 대처전략(회피)과 대처전략(통제), 대처전략(통제)와 대처전략(통제+회피), 대처전략(회피)과 대처전략(통제+회피)였다.

자아존중감과 성격, 대처전략(통제)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A형 타입이 아닐수록, 대처전략을 사용하지 않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PWI 점수와 자아존중감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PWI 점수는 낮았으며, PWI 점수와 A형 타입 성격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A형 타입성격에 가까울수록 PWI 점수가 높았다.

### 4. PWI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변인

스트레스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변인을 보기 위한 다변량분석은 표 4와 같다.

뇌성마비근로자의 스트레스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변인은 자아존중감, 성격이었다.

자아존중감은 음의 관계를 가져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PWI 점수는 낮아지고, 성격이 A형 타입인 경우 PWI 점수는 높아지며 모형의 검정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모형의 설명력은 49.8%이었다.

표 3. 중재변인과 PWI의 상관관계

|             | 자아존중감     | A형 타입    | 성격 | 대처전략(통제) | 대처전략(회피) | 대처전략  | 사회적 지지 |
|-------------|-----------|----------|----|----------|----------|-------|--------|
| A 타입 성격     | -0.307*   |          |    |          |          |       |        |
| 대처전략(통제)    | -0.323*   | 0.162    |    |          |          |       |        |
| 대처전략(회피)    | -0.076    | 0.172    |    | 0.344*   |          |       |        |
| 대처전략(통제+회피) | -0.226    | 0.204    |    | 0.772*** | 0.862**  |       |        |
| 사회적지지       | 0.172     | 0.102    |    | -0.037   | 0.177    | 0.099 |        |
| PWI 점수      | -0.614*** | 0.473*** |    | 0.164    | 0.105    | 0.160 | -0.048 |

\*p<0.05, \*\*p<0.001, \*\*\*p<0.0001

표 4. PWI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변인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Parameter estimate | Standard error | t      | p     | Model                           |
|--------|-------------|--------------------|----------------|--------|-------|---------------------------------|
| PWI 점수 | A형 타입 성격    | 1.563              | 16.877         | 3.089  | 0.003 | R <sup>2</sup> =0.498, p=0.0001 |
|        | 대처전략(통제)    | -3.139             | 1.675          | -1.873 | 0.066 |                                 |
|        | 대처전략(회피)    | 0.345              | 0.268          | 0.168  | 0.867 |                                 |
|        | 대처전략(통제+회피) | 27.800             | 15.723         | 1.768  | 0.082 |                                 |
|        | 사회적지지       | -0.258             | 1.007          | -0.256 | 0.798 |                                 |
|        | 자아존중감       | -1.733             | 0.337          | -5.140 | 0.000 |                                 |

표 5. 각 중재변인의 비차비

| 변인          | 평균점수   | N(%)   | PWI score |       | 비교위험도(95% CI)    |
|-------------|--------|--------|-----------|-------|------------------|
|             |        |        | 62점이하     | 63점이상 |                  |
| A형타입 성격     | 아닌 편이다 | 54(82) | 40        | 14    | 1.00             |
|             | 그런 편이다 | 12(18) | 5         | 7     | 4.00(1.13~14.04) |
| 대처전략(통제)    | 적게 사용  | 43(65) | 31        | 12    | 1.00             |
|             | 많이 사용  | 23(35) | 14        | 9     | 1.66(0.56~4.86)  |
| 대처전략(회피)    | 적게 사용  | 40(61) | 27        | 13    | 1.00             |
|             | 많이 사용  | 26(39) | 18        | 8     | 0.92(0.31~2.69)  |
| 대처전략(통제+회피) | 적게 사용  | 44(67) | 32        | 12    | 1.00             |
|             | 많이 사용  | 22(33) | 13        | 9     | 1.84(0.62~5.43)  |
| 사회적지지       | 높음     | 20(30) | 14        | 6     | 1.00             |
|             | 낮음     | 46(70) | 31        | 15    | 1.12(0.35~3.55)  |
| 자아존중감       | 높음     | 23(35) | 20        | 3     | 1.00             |
|             | 낮음     | 43(65) | 25        | 18    | 4.80(1.31~17.49) |

## 5. 각 중재변인의 비차비

각 중재변인의 비차비는 표 5와 같다.

중재변인은 5점 척도에서 평균 3.0을 기준으로, 스트레스 정도는 PWI반응을 고위험군(63점 이상)과 저위험군(62점 이하)으로 나누어 구한 비교위험도는 다음과 같다.

성격이 A형 타입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는 4.0배 높았고 유의했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스트레스 정도는 4.8배 높았으며 유의했다.

## IV. 고 찰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스트레스 정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재변인으로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대처 전략, 성격을 선정하여 뇌성마비근로자에게 스트레스 정도를 화시키는데 중요한 중재변인을 확인하여 재활전문인에게 그들을 치료하고 직업을 준비, 유지하는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의 대상으로 경·인 지방 보호고용 20개 시설 중(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1) 설문을 허락한 15개의 보호고용사업체에 근무하는 뇌성마비장애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지 66부를 분석하였다. 보호고용이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들만 따로 고용되어 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박옥희, 1999).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시설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보호작업장 12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713명의 중증장애인이 고용되어 있다(시설의 보호고용현황, 노동부, 내부자료, 1996).

스트레스 정도를 완화시키는 중재변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와 다변량 분석을 하였다.

중재변인과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는 PWI 점수간 상관관계에서 유의했던 중재변인은 자아존중감과 A형 타입성격이었다.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PWI 점수는 낮아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A형 타입의 성격일수록 PWI 점수는 높아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변량 분석을 통해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A형 타입의 성격일 경우가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요인이었으며 49.8%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각 중재변인의 높고 낮음을 나누어 비차비를 통해 비교위험도를 구하였다. 신뢰구간 95%에서 유의한 비교위험도를 보인 중재변인도 A형 타입의 성격과 자아존중감이었다. A형 타입이 강한 성격의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4배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4.8배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성격은 산업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다루어진 개념은 A형 행동(타입) 유형(전경구, 1998)으로 A형 행동유형(타입)은 관상동맥심장질환의 위험요인으로 간주되면서 최근 스트레스 연구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Friedman과 Rosenman(1974)은 관상동맥질환과 A형 행동유형(타입)과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A형 행동유형(타입)의 소유자들은 적은 시간에 보다 많은 성취를 하려고 끊임 없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며, 경쟁적이고, 공격적이며, 시간적 압박감을 느끼고, 참지 못하게 되고 무기력감을 보이는 반면에 B형 행동유형(타입) 경우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많은 직업성 스트레스와 A형 행동유형(타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작업관련 환경 내에 스트레스 원 자체가 A형 행동유형(타입)을 강화시킨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Cooper, 1987). 또한 A형 행동유형(타입)인 사람의 경우 B형 행위자보다 자신의 일을 더 스트레스 적이라고 평가하는 등 자신의 작업환경 및 정신적, 신체적 건강 상태를 B형 행위자와는 다르게 지각한다고 하였다(Hagihara 등, 1997; 이종목, 1991). A형 행동유형(타입)의 관리자는 B형 행동유형(타입)에 비해 양적인 작업과부하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경력 부족과 내적 만족, 역할 갈등, 수축기 혈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Ivancevich 등, 1982). 이와 같이 A형 행동유형(타입)이 직무 스트레스와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입증되고 있으나 스트레스-완충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관련요인을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으로 A형 행동유형(타입)인 사람일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이는 A형 행동유형(타입) 성격이 적은 경우에 스트레스-완충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정민예, 2002). 즉 지체장애근로자에게 있어 덜 서두르고, 덜 경쟁적인 B형 행동유형(타입)을 지닐 수 있도록 재활과정이나 직업훈련과정에서 심리적 접근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행동유형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뇌성마비 근로자에게서도 이러한 A형 타입의 성격에서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확인하였고, 이들도 재활치료에 있어 A형 타입의 성격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Lazarus와 Folkman(1984)은 대처를 “자신의 안녕에 중요하며 적응에 따른 자원의 소비가 요구되는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개인이 기울이는 문제해결 노력”이라고 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행위를 직접 시도하거나 정보를 찾아내는 등 적극적인 문제중심 대처가 긍정적인 적응상태를 예측한다고 간주되나(김명선, 1997), 인지·현상학적 입장에서는 어떤 대처 전략도 원래부터 좋거나, 나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통제가능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한다면 자기 비판이나 정서적 표현과 같은 대처유형도 문제해결적인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적응상태와 관련될 수 있다(김정희, 1987). 대처 전략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분류하고 있는데, Latack(1986)은 대처전략의 유형을 조치 전략과 인지재평가 전략 중에서 적극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구성된 통제전략과 회피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구성된 회피전략, 그리고 일반적인 직업성 스트레스 증상을 관리하는 증상관리 대처전략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하지만 증상관리 대처전략은 통

제나 회피전략처럼 상황특정적 특성이 아니라 전반적인 스트레스 증상과 포괄적으로 관련된다는 연구로 통제, 회피로 구성된 김정희의 대처전략 16문항 중 뇌성마비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1가지 문항을 제외한 15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처 전략 중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인 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1.66배 높았고, 회피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0.92배 낮았으나 이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대처전략(통제+회피)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1.84배 높았지만 유의하지는 않아 김선숙(1997)과, 김정희(199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뇌성마비근로자들이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Jhon과 Hall(1988)은 사회적 지지에 따라 고립된 집단(isolated group)과 통합된 집단(collective group)으로 나누어 직업성 긴장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사회적 접촉을 하지 못함으로써 해서 생기는 직장 내에서의 사회적 고립이 또 다른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고립이 높은 직무요구도와 낮은 직무통제성과 결합될 경우 심혈관계질환의 유병률을 높이게 된다. 특히 직장 내에서의 동료들의 지지와 상급자의 지지는 직업성 긴장의 위험도를 감소시켜 정신건강 및 심혈관계질환, 위장장애, 근골격계 질환을 줄일 수 있는 중재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뇌성마비 근로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집단에 비해 낮은 집단의 스트레스 수준은 1.12배로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직장 여성을 대상으로 한 임승락 등(2000)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은 스트레스과정에서 파생되는 요구들을 처리하는데 가장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긴장이 지속적으로 과다하게 되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게 되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져 우울과 같은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Pearlin 등, 1981).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은 문제에 대해 폭 넓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압도당하는 느낌이 적을 것이라고 하였으며(Delongis 등, 1988)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사건의 부정적 영향을 과대 평가하게 된다(Kliever 등, 1992). 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PWI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한 관련요인이었다. 뇌성마비 장애인들도 취업을 하고, 취업상태를 유지하는데 본인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는 경·인 지역 보호작업장 뇌성마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단면연구이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뇌성마비근로자들에게 일반화 시키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많은 장애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요구되며 특히 지체장애근로자를 더욱 세분화하여 각 장애마다의 스트레스 관련요인과 중재변인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는 뇌성마비근로자의 스트레스 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재변인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경·인 지역 보호고용 20개 시설 중 설문을 허락한 15개의 보호고용사업체를 대상으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수집한 자료 66부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뇌성마비 장애인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성격과 자아존중감이었다.
2. A형 타입의 성격을 가진 집단이 그렇지 않

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는 4.00배 높았으며 유의했다.

3.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는 4.8배 높았으며 유의했다.

## 참 고 문 헌

- 김명선. 대처유형, 특성 불안의 심리적 특성이 스트레스의 지각과 반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심신 스트레스학회지. 1997;5(1):31-38.
- 김선숙.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음주행태에 관한 연구-대처기술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김정희. 지각된 스트레스 인지세트 및 대처방식의 우울에 대한 작용-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7.
- 김정희. 제조업 근로자의 직업성 스트레스 모형구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박옥희. 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1999.
- 송영숙, 이종목. 사무직 여성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증세변인, 결과변인과의 관계. 대한심신 스트레스 학회지. 1997;5(1):16-30.
- 이계존, 조상현. 뇌성마비장애인의 직업영역확대를 위한 조사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8.
- 이종목, 박한기. 직무스트레스 척도 제작에 관한 연구(II). 전남대학교 논문집. 1988;33:1-20.
- 이종목. 생산직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그 결과와의 관계. 성공논총. 1991;22:1-33.
- 임승락, 김지혜, 이동수 등. 여성의 직무스트레스, 대처자원과 정신건강: 종합병원 일반직 사무직을 대상으로. 신경정신의학. 2000;39(6):999-1009.
- 장세진. 스트레스. 건강통계 자료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 연구. 대한예방의학회. 1993;121-159.
- 전경구. 산업스트레스. 산업 및 조직 심리학. 박영사. 1998;489-530.
- 전병제.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974;11.
- 정민예, 이재신, 이지연. 보호작업장 뇌성마비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련요인 (I). 대한 작업치료학회지. 2002;1:25-34.
- 정민예. 제조업종사 지체장애근로자의 스트레스 관련요인.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최정애. 일부 산업장 근로자의 간이정신진단 검사 (SCL-90)결과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1982;15(1):219-227.
- Cooper CL. Stress-prone behavior: Type A Behavior: In R Kalimo, MA Batawi, CL Cooper, eds. Psychosocial Factors at Work and Their Relation to Health. Geneva, WHO. 1987.
- DeLongis A, Folkman S, Lasarus RS.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 Pers Soc Psychol. 1988;54(3):486-495.
- Friedman MD, Rosenman RH. Type A behavior and your hear. New York, Knop. 1974.
- Goldberg DP. Manual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Winsor, NFER Publishing Company. 1978.
- Hagihara A, Tarumi K, Miller A, et al. Type A and Type B behaviors, work stressors, and social support at work. Prev Med. 1997;26(4):486-494.
- Ivancevich JM, Matteson MT, Preston C. Occupational stress, type A behavior and physical welling. Acad Manage J. 1982;25(2):373-391.
- Jhonson JV, Hall EM, Theorell T, et al. Work place social support, and cardiovascular disease: a cross-sectional study of a

- random sample of the swedish working population. Am J Public Health. 1988;78:1366-1342.
- Kessler RC, Neighbors HW. A new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s among race, social class, and psychological distress. J Health Soc Behav. 1986;27:107-115.
- Kliewer W, Sandler IL.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as moderators of stressor-symptom rela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J Abnorm Child Psychol. 1992; 20(4):393-413.
- Latack JC. Coping with job stress: measures and future directions for scale development, J Appl Psychol. 1986;71:377-385.
- Lazarus RS,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1984.
- McCandless BR. Adolescents Behavior and Development. Hinsdale Illinois, The Dryden Press Inc. 1970.
- Pearlin LI, Lieberman MA, Menaghan EG, et al. The stress process. J Health Soc Behav. 1981;22:337-356
- Rosenberg M.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